

‘스몰볼’ 휴스턴, 밀워키 격파  
리바운드 36-65 밀렸지만 속공·외곽슛 압도



휴스턴의 러셀 웨스트브룩(왼쪽)이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디즈니월드 내 ESPN 와이드 월드 오브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벌어진 2019~2020 NBA 재개 시즌 경기에서 밀워키의 야니스 아데토쿰보의 수비를 피해 동료에게 패스를 하고 있다. 올랜드(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스몰볼’을 추구하는 휴스턴 로키츠가 우승후보 밀워키 벽스를 꺾었다. 휴스턴은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디즈니월드 내 ESPN 와이드 월드 오브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벌어진 2019~2020 미국프로농구(NBA) 재개 시즌 경기에서 밀워키에 120-116으로 승리했다. 제임스 하든(195cm·24점·7리바운드·7어시스트)과 러셀 웨스트브룩(191cm·31점·6리바운드·8어시스트)이 중심이 된

휴스턴은 주전 5명 중 200cm가 넘는 선수가 로버트 코빙턴(201cm·15점·7리바운드) 1명밖에 없는 팀이다. 코빙턴의 신장은 밀워키의 슈터 크리스 미들턴(201cm·27점·12리바운드)과 같다. 반대로 밀워키는 리그 최고의 선수인 야니스 아데토쿰보(211cm·36점·18리바운드·8어시스트), 센터 브룩 로페즈(213cm·23점·12리바운드) 등 장신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신장이 큰 선수가 제공권 장악에 유리한 종목 특성상, 휴스턴은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리바운드 숫자에서는 밀워키에 36-65로 크게 밀렸다. 휴스턴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뒤지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주축선수들의 신장이 크지 않음에도 경쟁이 치열한 서부 콘퍼런스에서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수비로 상대 실책을 유발해 속공을 전개하고, 공격에서는 쉴 틈 없이 3점슛을 던진다.

휴스턴의 팀 색깔이 밀워키전에서 빛났다. 휴스턴의 실책은 9개였지만, 밀워키는 무려 22개의 실책을 쏟아냈다. 또한 휴스턴은 출전선수 8명이 무려 61개의 3점슛을 시도해 21개를 팀에 적중시켰다. 3점슛으로만 63점을 뽑았다. 휴스턴이 한 경기에서 60개 이상의 3점슛을 시도한 것은 이번 시즌만 7번째다.

117-116으로 근소하게 앞선 경기종료 14초전에는 대뉴얼 하우스(196cm·16점)가 아데토쿰보의 볼을 가로채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휴스턴은 스틸도 15개로 밀워키(6개)보다 2배 이상 앞섰다. 속공 또한 15개로 밀워키(10개)보다 많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K리그 측면서 펄펄...학범슨이 웃는다

(김학범 감독)

엄원상 3골 1AS...광주의 돌격대장  
부산 승격 일등공신 이동준 3골 3AS  
빠른발·과감한 돌파 등 한단계 진화

반쪽이는 ‘젊은 피’의 활약에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활짝 웃는다. 요즘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들은 K리그1(1부) 광주FC 윙 포워드 엄원상(21)과 부산 아이파크 오른쪽 날개 이동준(23)이다. 주말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0’ 14라운드에서도 사실상 같은 포지션에서 경쟁하는 둘은 날카로운 플레이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

엄원상은 공격 포인트로 존재감을 뽐냈다. 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2골을 몰아쳤다. 전반 22분 인천 아길라라에게 중거리포를 허용한 광주는 후반 27분과 41분, 엄원상의 멀티 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결국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 펠리페의 썸기 골을 더해 3-1 역전승을 일궜다.

펠리페를 중심으로 윌리안과 측면 공격을 책임진 엄원상은 빠른 주력과 묵직한 킥이 강점이다. 인천 원정에서 상대 수비진을 헤집고 침투해 슛을 날려 얻은 첫 골과 동료와 절묘한 콤비 플레이로 일군 두 번째 골 모두 환상적이었다.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첫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 준우승을 일군 지난해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엄원상은 올해 초 도쿄올림픽 예선을 겸해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 출격해 김학범호의 승선 범위에



광주FC의 엄원상(왼쪽 사진)과 부산 아이파크의 이동준은 K리그1 무대에서 꾸준히 출전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 초 예정된 A대 대표팀과의 2차례 대결을 앞둔 U-23 대표팀 김학범 감독도 두 선수의 최근 활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

에 있음을 증명했다. 올 시즌 10경기에서 3골·1도움을 올린 엄원상이 광주의 생존경쟁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면 부산에는 이동준이 있다. 주로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는 그는 지난해 K리그2(2부)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던 부산 승격의 일등공신이다.

폭넓은 활동량을 자랑해온 이동준은 부산의 리그 전 경기(14회)를 소화하며 3골·3도움을 올렸다. 리그 선두 울산 현



광주FC의 엄원상(왼쪽 사진)과 부산 아이파크의 이동준은 K리그1 무대에서 꾸준히 출전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 초 예정된 A대 대표팀과의 2차례 대결을 앞둔 U-23 대표팀 김학범 감독도 두 선수의 최근 활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

대에 1-2로 무너진 주말 홈경기에서도 오른쪽 풀백 김민환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과감한 돌파로 팀에 활력을 실었다. 경험 많은 울산의 국가대표 왼쪽 풀백 홍철이 쉴 새 없이 공간을 파고든 이동준을 막아내느라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도였다.

‘U-23 김학범호’의 2선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다. 둘 외에도 김대원(대구FC), 이동경(울산) 등이 올림픽 출전의 꿈을 부풀

리고 있다. 현재 팀에서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이동준이 주축한 상황이라 나이를 꼭 채운 이동준과 형님들보다 어린 연령의 엄원상에게 힘이 실린 분위기다.

9월 초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펼쳐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의 A대표팀과 두 차례 대결을 앞둔 김 감독은 엄원상과 이동준을 모두 호출해 다양한 공격조합과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KBL 외인 훈련을 어찌나...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비자 발급 늦어져  
2주 자가격리 마치면 9월초나 합류 가능

차기 시즌 KBL 무대에서 활약할 외국 선수들의 한국행이 늦어지면서 팀 훈련 합류 시점 또한 늦춰질 전망이다.

KBL 10개 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선수들은 이달 25일부터 팀 훈련 합류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도착한 뒤 2주간 자가 격리가 필수인 국내 방역 지침을 고려해 KBL과 10개 구단은 10일 이후로 언제든 외국

인선수가 입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면서 여전히 입국 일자를 확정하지 못한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구단 관계자는 “지나해까지는 입국한 뒤 훈련을 하다가 인건 국가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아예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구단이 정해놓은 별도의 장소에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할 수 있어서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 등 외국인선수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데 현지 사정으로 비자 발급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한다. B구단 관계자는 “지역, 나라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지만 코로나19 음성 판정

서 등 모든 서류를 구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해도 취업 비자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2주 이상은 걸리는 듯 하다. 이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판단된다”라고 얘기했다.

이에 따라 원래 정해진 이달 25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가 가능한 외국인선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면 9월초에나 팀 동료들과 만날 수 있는 외국인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다.

외국인선수들의 팀 훈련 합류 시점이 KBL 10개 구단의 시즌 준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제419980144668호



썩을대로 썩어 죽은 시체, 좀비와 다름없는 세계 교회 대혁신  
모든교회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환경과 사람, 교회 살리는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종교재단 등극!

코로나 이후 앞으로의 교회는 어찌 될 것인가? 무슨 놓고서 염려 걱정뿐이요 대책도 대안도 없는 분석과 비판을 가 할뿐이다. 재정능력은 고사하고, 생명력을 상실하여 좀비취급을 당하며 급기야 개독교로 전락해 버린 오늘의 교회를 원상복구하고, 돈걱정 없이 목사가 먼저 대접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원 없이 베풀고, 원 없이 기부하는 성경적 기부경제학의 실현을 꿈꾸는 참 목회자들과 단 한번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공유하려 합니다.

종교재단 총재 황호관 목사  
목회학박사/개교교단 중경 총회장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김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교단 본부

● 서울 김기성 목사 010-4688-3491/전종근 목사 010-4640-7729/한광영 목사 010-2018-0866/조근자 목사 010-2488-0691/신비현 목사 010-9220-4334 ● 부산 김수용 목사 010-3639-4979 ● 인천 윤병모 목사 010-5063-8831/박윤식 목사 010-3227-0993/서동원 목사 010-3489-4190/김호중 목사 010-8488-2999 ● 김도수 목사 010-5809-3977 ● 부천 김광순 목사 010-6265-0993 ● 이현,여주 최정일 목사 010-2607-8191 ● 경기북 박성근 목사 010-4705-6175 ● 경기남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군포,의왕 최시행 목사 010-2514-8128 ● 경기광주 신동선 목사 010-4461-8292 ● 양명 신동성 목사 010-8603-7717 ● 평택 한성일 목사 010-8669-3125 ● 고양시 김석만 목사 010-4277-0691/고령동 목사 010-2391-3004 ● 김포 김인나 목사 010-4242-2577/김재현 목사 010-7742-9175 ● 중령 고영철 목사 010-5463-6892

투자 전혀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등빈교회 1만여개, 미자립교회를 살리는  
신 르네상스 프로젝트  
선착순 1111개 교회(성도 333명 구축지원),  
퇴임목사 수만명, 5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에  
무조건 선착순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선착순 혜택

- 본부교회 1% (교수익 가치 증여) 1004명 성도모집 혜택
  - 10개 교회 1% (교수익 가치 증여) 333명 //
  - 100개 교회 1% (교수익 가치 증여) 333명 //
  - 1,000개 교회 1% (교수익 가치 증여) 333명 //
- 선착순 1111개 교회 333명 현금지원 (최소 월 300만원 이상)



하이우분투(주)  
Hiubuntu 070-4414-1338